

질병관리본부, 올 하반기 주의 10대 감염병 예방수칙 발표

노로바이러스 등 예방엔 '30초 이상 손씻기'

질병관리본부가 올 하반기에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유행이 우려되는 감염병으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쯔쯔가무시증 ▲레지오넬라증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감염증 등 5가지, 신종 및 재출현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는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모기매개감염증 ▲바이러스성출혈열 ▲병원성비브리오패염증 등 5가지를 지목했다.

대신 질병관리본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방수칙만 잘 지키면 감염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일상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왼쪽)과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

◇일상생활 감염병 예방수칙

가장 기본적인 예방수칙은 '30초 이상 손씻기'다. 질병관리본부는 많은 감염병이 손을 통해 전파되는데 30초 이상 비누 등을 이용해 손을 씻으면 세균과 바이러스 대부분이 없어진다며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옷소매 위쪽으로 기침하기'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예방수칙이다. 손이 아닌 옷소매 위쪽(팔꿈치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면 침에 있는 바이러스

등 병원체가 손에 묻어 전파될 우려를 줄인다는 설명이다.

또한 '안전한 물과 음식먹기'도 권한다. 섭씨 85도 이상 온도에서 익혀먹고 물을 끓여 먹으면 열에 약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어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질병본부는 전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과학적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권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12세 이상 어린이 대상 17종 백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2종의 백신을

▶일상생활 감염병 예방

옷소매 위쪽으로 기침하기는 기본
음식·물 익히거나 끓여먹어야
가장 과학적 방법으로 '예방접종'

전국보건소 등을 통해 무료 접종하고 있으며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등 일부 노출 고위험군 2종 백신은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해외여행시 감염병 예방

여행국가 감염병 발생정보 확인
출국 최소 2주전에 예방접종 필요
해외여행시 동물 접촉 피해야

이밖에 진드기와 모기에 의한 감염병은 매개체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질본 관계자는 "야외 활동시 수풀 주변은 되도록 가지 않고 밝은 색의 긴 옷을 착용하

며 야외 활동후에는 샤워나 목욕을 꼭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여행시 감염병 예방수칙

최근 해외여행자수가 증가하면서 해외유입 감염병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지카 공포 등은 좋은 예다.

우선 해외여행에 앞서 여행국가의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로 들어가 국가별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길 권한다.

또한 출국 최소 2주전에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황열이나 콜레라 예방 백신은 전국 국립검역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다. A형간염이나 장티푸스 등은 가까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

해외여행시에는 동물 접촉을 피해야 한다. 해외유입 감염병의 대부분은 야생동물을 매개하거나 진드기, 모기 등에 의해 전파된다.

질본관리본부가 지정한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 민원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한다.

민일 귀국후 증상이 발생했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신고해 보건소 연계 등 신속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뉴스

전국 10개 지자체서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 추진

정부, 익산시·경기 과천시 등 10곳 최종 선정... 돌봄 사각지대 해소 기대

정부가 '마을 돌봄공동체의 복원'을 목표로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27일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기 과천 ▲충북 청주 ▲단양 ▲충남 보령 ▲서천 ▲전북 익산 ▲전남 여수 ▲경남 창원 ▲함양 ▲울산 북구 등 10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에 대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내 공동체 자원을 활용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는 취지다.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친인척 수준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예를 들어 부모 출·퇴근시간에는 자녀의 등·하원을 돕고, 초등학교 방과후 일일돌봄, 병원 이용 등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할 때는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또 지자체마다 운영 중인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하게 했다.

공간은 마을회관·주민센터, 경로당, 보건소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해 활용한다.

인력은 자원봉사, 마을주민협의체 등 지역내 인적자원을 통해 충당한다.

일시·긴급돌봄은 경력단절 교육교사, 은퇴교원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은 재능기부, 지자체 문화예술·체육강사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경력단절과 출산포기를 방지하고 돌봄 일

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복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는 개소당 사회서비스사업 예산 2000만원, 리모델링비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돌봄 일자리 인건비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맞춤형 시범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방과후 복지부 장관은 "다함께 돌봄 사업이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마을 돌봄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인 사회를 만드는 데 지역사회와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초저출산을 탈피하는 국가책임돌봄 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독립성·전문성 강화 감염병 안전사회 구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취임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은 27일 "새정부의 공약사항인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후생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7대 본부장 취임식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속하고 강력한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국내외 감염병 정보분석 및 위험평가, 정보제공 시스템을 정교하게 하고, 감염병 관리의 핵심인 역학조사와 진단역량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또 "국정과제인 감염병 전문병



원 도입, 초중고생, 어린이집·유치원생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최근 발생한 신종아실 잠복결핵 집단 감염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핵 발생률 OECD 1위의 오명을 벗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성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희귀질환 관리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치매 극복을 위해 치매 조기진단기술 개발, 치매 연구지원 허브 구축 등 치매 R&D를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이 명실상부한 국가 보건의료 R&D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 보건 의료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연구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뉴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